

간간해진 ‘학교 신설’…전주 교육대란 우려

신도심 초중고 9개 필요…현재 초등 2곳만 설립 확정

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우선”…도교육청과 이견

전주시내의 대규모 개발 지역에 초·중·고교 등이 제대로 설립되지 않아 ‘교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학교 신설시 소규모 학교부터 우선 통폐합하라’는 교육부의 방침과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사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신설해야 할 전주시내 대규모 개발지역은 예코시티와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9개의 초·중·고교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설립이 확정된 학

교는 초등학교 2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우선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예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6개의 초·중·고교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부의 불허로 현재 초등학교 1곳만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인근 소규모 농촌학교인 초포초등학교를 이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민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고교생들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해 4~5km 떨어진 외부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할 형편이다.

4700여 가구가 입주하게 될 효천지구도 최소 1개 이상의 학교가 있어야 하지만 설립이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2000여명의 학생들은 1km 이상 떨어진 주변의 삼천지구나 효자지구 에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00여명으로 추정되는 초등학교생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 왕복 6차선 안팎의 도로를 건너다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 지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5800여 가구로 구성되는 만성지구도 초등학교 1곳만 교육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

중학교는 신설이 불허돼 인근 학교를 이전해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신설이 어려운 것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부터 적용하는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탓이라는 게 교육

계의 주장이다.

이는 학교를 신설하려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을 사전에 통폐합하는 정책으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농어촌과 구도심 학교의 공동화가 심각한 데 따른 대책이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도 무너진다”며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학교를 통·폐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2013년 이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 사례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

결국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적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연합뉴스

한복은 이렇게 입는거야~



고창군, 다문화가족 초대

‘설날 복 나눔잔치’ 진행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연화)는 “지난 17일 고수 우평마을에서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2017년 설날 복 나눔잔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결혼이민자들이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를 보다 즐겁게 익혀 가족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다문화가족 60여명이 참석해 우평마을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설날 유래와 덕담을 듣는 시간과 함께

떡국 나눔, 윷놀이, 전통놀이체험 등을 즐겼다.

강연화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매년 새로 입국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센터에서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명절 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명절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지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에도 한국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직업훈련, 학력취득지원과 문화 교육지원사업, 청소년진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전북 사랑의 온도탑

57일만에 100도 달성

모금액 62억 2911만원 기록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북도민의 온정은 식지 않았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지난 17일자로 ‘희망2017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수온주가 모금 57일만에 100도를 넘어 102.5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금액 목표액은 총 59억8000만원으로, 17일 현재 61억291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소외된 이웃에 보내온 온정 덕에 사랑의 온도탑은 18번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기록을 냈다.

사랑의 열매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나눔캠페인을 진행했고, 전주시 덕진구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모금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나눔에서는 개인 기부와 기업의 기부가 두드러졌다.

기업 기부액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14억2749만원이었고, 100만원 이상 개인 기부액도 45% 증가한 43억179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사랑의 온도탑이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18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성금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모아진 성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구례군, 친환경 식품기업 6개사와 투자 협약

자연드림파크 2단지에

469억원 투자…일자리 250개

전남도와 구례군이 친환경 식품기업 6개사와 469억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18일 “이날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구례군과 공동으로 아이쿱생협 친환경 식품기업 6개사와 구례자연드림파크 2단지 내에 총 469억원을 투자하고, 25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오미에 회장과 ㈜굽양곡 등 6개 기업 대표이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자연드림파크 2단지 4만9105㎡의 부지에 증설 투자하게 된 ㈜굽양곡 등 6개 기업은 구례자연드림파크 1단지에서 이미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로, 기존 사업이 안정함에 따라 추가 설립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굽양곡은 8159㎡ 시설부지에 150억원(고용창출 40명)을 투자해 내년 말까지 친환경 우리 밀가루 제분공장을 건립하며, ㈜굽서비스는 4257㎡ 부지에 80억원(고용창출 50명)을 투입, 올해 말까지 식료품 저장 및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굽메이커리㈜는 5583㎡ 규모에 67억원(고용창출 60명)을 들여 베이커리용 빵류 및 케이크류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 아



이쿱정과㈜는 3708㎡ 시설부지 내에 40억원(고용창출 30명)을 투자해 지역에서 생산한 배추, 감자, 당근 등 친환경 농산물로 절임배추 및 채소류 전처리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굽축산㈜는 3691㎡ 부지에 내년 말까지 친환경 사료 제조공장 건립을 위해 90억원(고용창출 30명)을 투자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6개 기업의 증설 투자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품목과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오미에 회장은 “정확 및 나눔사업을 통해 매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우리가 가야할 미래 농촌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앞으로 더 다양한 친환경농산 가공품의 생산과 공급으로 체험과 관광의 명소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오는 3월께 전국 최초로 구례군 전체를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해 구례군을 친환경 농업도시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난 2014년 문을 연 이후 유통품의 17개 친환경 식품 가공 공장과 숙박시설, 영화관, 체험관 등 문화와 휴식시설을 한 공간에 갖춘 미래형 농공단지의 성공모델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8만명의 유료 방문객이 다녀갔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시, 내일로 페스티벌 ‘먹GO, 놀GO, 복GO’ 개최

24일 드라마촬영장

퀴즈 등 프로그램 다양

순천시는 “2017 내일로 페스티벌을 ‘먹GO, 놀GO, 복GO(쓰리GO)’란 주제로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4시까지 드라마촬영장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순천 여행지 곳곳을 퀴즈로 풀어보는 ‘순천 얼마나 아니?’, ‘순천여행 O/X퀴즈’, 드라마촬영장을 배경으로 찍은 창의적이고 유쾌한 사진을 선발하는 ‘복고 사진 콘테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역 버스킹 공연과 푸드트럭 운영 등으로 눈과 입이 즐거운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청춘여행 갑잡이들이 기획부터 진행까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스쳐 지나가는 여행이 아닌, 참여와 체험으로 가슴깊이 새길 수 있는 추억으로 남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춘 여행갑잡이는 지역 관광 발전에 관심 있는 청년 22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내일로 관광객 여행 안내, SNS 홍보,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제작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내일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맞춤형 순천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웹툰 청춘여행 운영, 숙박업소 정비 및 숙박 인센티브 지급, 도심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관광지 통합입장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관광진흥과(061-749-5795) 및 웹툰 청춘여행(061-746-1388)으로 하면 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 택 / 투 자

-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먼트 현대아파트옆 매 22억

농 지 / 투 자

-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 7. 나주시 세지면 오희리 연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 준 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펜션·전원주택지

- 장성군 북이면 입암산 밑 한옥마을 등 적합 6만㎡ 교통중용 9억
-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806㎡ 남향 위치중용 8000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반도 전망중용 1억4500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중용 남향방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청송군 인왕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투자·매도·교환

- 순창군 구림면 강가에 경치중용 일야 다용도 1195㎡ 8천만원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추상복합 가능 5억
- 담양군 금성면 월물리 1488㎡ 찻집·기대 적합 1억9천
- 담양군 천변리 생산녹지 2968㎡ 차량통행 원활함 7억2천
- 담양 풍산면 대추리 2939㎡ 비닐하우스 4동있을 1억4천
- 나주시 노안면 5388㎡ 농장·전원생활 중용 교통중용 5억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풍산면 가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
- 담양군 금성면 국도점 7255㎡ 전원주택 아파트 등 적합 7억3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천
- 광산구 고숙도로에서 7분거리 1300㎡ 공장·창고적합 1억5천
- 광진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남향·도로중용 7억
- 강진군 울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할·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상가건물

- 화정동 광주은행옆 대지 235㎡ 2층건물 상가신축 적합 7억천
- 월산동 대지 197㎡ 건평 257㎡ 인접과 투룸 등 5 은행1억 매도3억
- 월산동 무진중근너 대지 258㎡ 건평 364㎡ 은행 9천 사무실, 사육, 가내공장, 광고제작소 등 적합 3층건물임 2억7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감정 52억 월세 3천만원상 임대비합
- 윤림동 중심사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유동 월림간을 대지 238㎡ 건평 152평 월물5, 투룸7 인접 매도 6억7700

주 택

- 월산동 보라아파트 부근 대지 96㎡ 주택 113㎡ 은행5천 매도 1억3700
- 월산동 콘소방도로점 대지 175㎡(53평) 건평 80㎡ 1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싸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매매 - 협의
- 소유자 직매 H. 010-4589-456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케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